

선조들 소중한 문화유산 '한눈에'

전북 전통문화예술품협회, 26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 문화유물 전시회'

전주에서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에 맞추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 약 2천여 점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려 전주를 찾는 재외동포 1천여 명과 지역 경제인 2천여 명 등 약 3천여 명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전시가 기획되어 화제다.

(사)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문화예술품협회(회장 박춘열)와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정우) 회원들이 모처럼 힘을 합쳐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 갤러리 전시실에서 '제6회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물 전시회'를 열었다.

두 단체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오래된 유물과 고미술품에서부터 근대사 유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품 2천여 점을 100여 평의 공간에 촘촘하게 전시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전북자치도에 산재한 문화유물과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고 즐기던 전통문화 예술품을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역만리 머나먼 타향인 외국에서 고생하며 사업을 일군 재외동포들이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접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과 애착심을 갖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전시회이기도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번 전시 기간에 선보이는 고미술품 중 유명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조선시대 유



물인 전라관찰사 발병부, 정조대왕 시대 어의의 호패와 침통, 나전칠기 밥그릇, 전주장, 다관과 기와, 곱들 등에서부터 근대사 유물인 전북도청 양궁 선수단의 사인 액자, 전주지방 전매국 담배 간판, 88 올림픽 기념 도자기, 서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유물과 각종 예술품을 망라해서 전시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가 좋아서 수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단법인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문화예술품협회 박춘열 회장은 "전북자치도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문화유산의 보고이니만큼 우리 선조들이 아끼던 문화유물을 더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면서, "요즘은 아파트 문화의 발달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 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소명의식이다"고 말해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편 (사)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문화예술품협회는 2014년 고미술품 애호가인 차민근 초대 회장과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 이정우 회장, 인디비주얼 대표 박춘열 현 회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보존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자생 단체이다.

협회 결성과 함께 제12회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시장에 9개의 부스 얻어 고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6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매년 불우 이웃 돕기 특별경매전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7년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전라북도 전통문화예술품협회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예술 전시회를 열고 보존에 앞장서며, 회원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에도 더욱 힘써 불우이웃돕기 자선경매전을 통해 얻은 이익 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고, 우리 문화유산 보존과 이웃을 돕는 선한 마음이 아름다워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전지적 몽룡 시점, 춘향이를 찾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60세 이상 성인 · 고3 수험생 대상 프로그램 신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특별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전지적 몽룡 시점, 춘향이를 찾습니다'를 신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 개최한 특별전 '서울 구경 가지스라, 임을 따라 갈까'부터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의 연계 교육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내용은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두 권의 책 '한양가'와 '춘향전'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스토리화했다. 춘향이를 두고 서울로 간 몽룡이가 그 곳에서 본 다양한 모습을 '한양가'에 담겨진 내용으로 소개하고, 급제 후에 내려온 정복에서 사라진 춘향이를 찾겠다는 구성이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특별전을 관람하고, 참여자 모두 몽룡과 춘향이 돼 전통한복을 입어보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특히 교육은 그간 박물관 교육 참여율이 낮았던 성인(60세 이상 전북거주인 우대)



과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문화창작소에서 지원하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어 지역민·지역기관과 함께 우리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강좌는 10월 29일(성인 대상), 11월 19일(고3 수험생 대상), 12월 10일(성인대상)으로 진행되며,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전화(063-220-1035, 1016)로 접수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북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포럼'이 2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열렸다.

전북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포럼

성별영향평가 ·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주제로 열려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북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포럼'이 2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열렸다.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정책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 공무원과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정희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포럼은 김희경 상임대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이택면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의 주제발표와, 세 명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희경 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광역자치단체 성인지예산조례의 제정과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택면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연

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성평등 제고를 직접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주 교수(전주비전대학교 지적도학과)를 좌장으로 국주영은 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정누리 전담연구원(공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노현정 컨설턴트(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가 참여했다.

특히 국주영은 의원은(농업환경복지위원회)이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포럼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책 실행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간 연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예술대로 길나래' 교육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에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예술인 역량강화재교육 지원사업 '예술대로 길나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대로 길나래'는 예술인들이 걷는 길에 날개를 달아주는 참된 교육이라는 의미로, 교육을 통해 도내 예술인들에게 기초 전문 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1회 차 교육 일정은 오는 31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 전시·기획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예술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재단 누리집(www.jtcr.or.kr) 사업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jtart2024@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1회 차 이후 △2회 차 11월 19일 △3회 차 11월 26일 △4회 차 12월 2일 등 총 4회 차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회 차별로 각 교육 일정 전까지 선착순으로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참여 예술인은 회 차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홍보, 예술창업,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 영감을 자극, 이후 참여예술인에 수료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전문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서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회차	일시	교육명	강사	시간
1회차	2024. 10. 31 (화) 15:30	4차 산업혁명 시대,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 전시 기획 교육	김희경	14:00~16:00
2회차	2024. 11. 19 (화) 14:00	예술창업을 위한 맞춤형 실무 교육	이택면	14:00~16:00
3회차	2024. 11. 26 (화) 14:00	예술인들 위한 AI로 이미지 생성 교육	정누리	14:00~16:00
4회차	2024. 12. 02 (화) 14:00	예술인들을 위한 홍보 교육	유은경	14:00~16:00

한국전통문화전당, '전라감영 다담상' 체험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7일까지 '전라감영 다담상' 체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호남의 수부로 불린 전라감영에서 다과 상차림을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와 관련, 체험은 옛날 지방관에서 감사나 사신을 접대하는 최상의 성찬을 준비하는 마



음으로 차려낸 다과 상차림을 전라감영 내에

서 맛보며, 전통악기 연주 감상과 함께 역사적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모두 10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체험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식문화팀(063-281-1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전라감영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험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전라감영 다담상을 테마로 하는 음식관광 상품화로 확장해 나가 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순창군의회의는 웃음 가득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손종석
의장

이성용
부의장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마화룡
경제산업위원장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우수
의원